

第106回(臨時會)

#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開會式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 2000年11月15日(水) 午前 11時01分 開式

## 第106回鐘路區議會(臨時會)開會式順

1. 開 式
2. 國旗에 대한 敬禮
3. 愛國歌 齊唱
4. 殉國先烈 및 護國英靈에 대한 默念
5. 開會辭
6. 閉 式

(11時01分 開式)

○議事擔當主事 張慶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6회 鐘路區議會 臨時會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國民儀禮가 있습니다. 壇上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起立)

(國旗에 대한 敬禮)

다음은 愛國歌 齊唱이 있습니다. 錄音된 전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愛國歌 齊唱)

이어서 殉國先烈 및 護國英靈에 대한 默念이 있습니다.

(一同 默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着席)

다음은 金正大 副議長님의 개회사가 있습니다.

○議長代理 金正大 존경하고 친애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모든 것이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오직 긍지와 자부심만을 갖고 항상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106회 임시회 개회식 참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盧張鐸 副區廳長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副議長 金正大입니다.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20만 우리 종로구민의 민의(民意)의 전당인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뵈게 되어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金以煥議長님을 대신하여 본인이 개회식과 본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상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대망의 21세기 첫해를 설레임과 희망속에 맞이한 지가 엇그제 같습니다. 높은 푸른 하늘과 오곡백과의 풍요로움도 잠시인듯, 겨울의 문턱인 입동(立冬)을 지나 소설(小雪)이 아직 몇 일 남았는데도 산간지방에는 벌써 눈이 내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짧았다고 생각되는 가을 풍요가 더욱 소중하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서서히 올해의 모든 업무들을 차분히 마무리 지으면서 연초(年初)에 계획되었던 주요사업과 업무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면서 2001년의 새로운 비전과 설계를 재촉케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 동안에 각별했던 의정활동

의 결과를 가지고 각 동 주민에게 보고해야 하는 때가 됐습니다. 많은 수고가 더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3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시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본인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성원으로 부의장이란 과분한 직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이 자릴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 신임 의장을 잘 보좌하면서 동료 의원 서로간에 화합하고 선진의회 위상 제고에 진력할 것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마는 벌써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의원 상호간에는 견해와 입장차이가 다소 있는 것 같아 때로는 참으로 아쉬움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노력 부족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3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추계 세미나에 다수 의원님들이 참석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까움이 적지 않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 의회가 개원한 이래 처음으로 지방의회와 합동세미나를 개최하여 특히 지방대학 유명 교수의 알차고 진지한 강의내용들은 앞으로 우리들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지방의회와 가능한 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생산적인 의회 운영방안 등을 공동으로 모색하여 보는데 바람직한 계기였다고 생각하여 봅니다. 본인은 가장 민주적이라 믿는 생산적 대화(對話)와 토론(討論)을 소중하게 여기고 의원 상호간에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효율적 의회 운영을 위한 말은 바 가교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선배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애정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도 어언 10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인도 2대째 의원으로서 5년 넘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느낀 지방의회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관련 법률이 많이 발전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방자치법령의 상당부분들이 중앙정부에 의

한 통제위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발전에 많은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방의회 회기문제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정례회의 회기를 연 2회 합하여 자치구의 경우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간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회 집회를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해당 자치단체의 사정을 감안하여 회기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지방자치의 정신에도 맞고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간회의 총 일수의 범위 내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지방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사항도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한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회 입법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또한 하루빨리 현재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으로 개정하여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강화 시켜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지방의회가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체 실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본인은 우리 의회의 막중한 역할에 대해 새삼스럽게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 의정활동은 주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구정업무에 미치게 될 영향 또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의회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우리의 의정활동도 주민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주적이고 성숙한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렴하여 이를 구정(區政)에 적극 반영하는 데에서만 주민들로부터 의회 위상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 모두는 항상 화합과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각오를 새롭게 다지며 의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최되는 제106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과 의원 발의로 제출한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승인(안)은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사업 하나 하나를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실시하는 제2차 정례회시 심사하게 될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필요한 기초자료들을 이번 회기에 미리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월동기를 맞아 화재 등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과 제설대책 그리고 저소득 주민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재래시장, 대형상가, 각종공사장, 가스공급시설 등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와 집중강설에 대비한 설해 취약지구 중점관리 및 제설장비 자재 점검과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실직과 미취업으로 생계가 곤란하고 힘들게 사는 이웃과 따뜻한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저소득 주민들이 없는지 항상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가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인 만큼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개최식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최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事擔當主事 張慶洙 이상으로 제106회 종료 구의회 임시회 개최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時17分 閉式)

○出席議員數 19人

○出席關係公務員

- 副 區 廳 長 盧張鏗
-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 財 務 局 長 董連浩
-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